

초창기 모더니즘 여성 건축가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에 관한 연구

- 여성 공간의 혁명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계화로의 편입인가? -

A Study on the early modernist woman architect, Margarete Schütte-Lihotzky

- A Revolution of woman's space or an assignment to the new industrialization? -

이란표* / Lee, Ran-Pyo

Abstract

The built-in kitchen that is seen in every household is one of the achievements of the modernism architecture in early 20th century. Developed on the basis of two axis, one of which is the high industrialization and the other the sceptical assessment on the traditional value-system, the 20th century was launched in the form of the twofold entanglement, through the unfolding of which the cultural code of the modernism could be operated. The Quantification of the psychic that was attempted by H. v. Helmholtz and E. Mach in the pursuit of the reunification of sensation to the normal science was the first thread of that, while the second the break-down of the authoritative ideology and the emancipation of woman labour, which were initiated by the leftist movements. In this situation Margarete Schütte-Lihotzky was the woman architect who has tried to overcome the patriarchy in the household through architectural work by dwelling on that the emancipation of the housewives from the inefficient household labour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accomplishment of human freedom. She applied the modernist functionalism to the designing the kitchen for that purpose and outlined the effective range and operational realm of the rationalization. After all this the future preoccupying endeavor became the decisive moment that gave birth to a aesthetically and functionally good deliberated design of the kitchen in the present.

This study is purposed to actualize the architectural ideas of Lihotzky into the present context through the consideration on the Frankfurt Kitchen of her and to grope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tecture and feminism on the common horizon of the functionalist architecture and the women's liberation.

키워드 : 빌트-인 주방, 심리적인 것의 양화, 합리화, 페미니즘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혹은 빌라 등과 같은 집단 주거단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빌트-인 주방(built-in kitchen)'은 20세기의 개막과 발맞춰 발전된 모더니즘 건축의 획기적 산물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고도의 산업화 과정이라는 한 축과 전통적인 가치체계에 대한 지난한 문제제기라는 다른 한 축 사이에서 시작된 20세기는 미래를 예시하는 발전코드들을 특정한 갈등구조의 형태로 배태하고 있었다. 실제적인 삶과 유리된 채 명목적인 추상적 가치만을 다루었던 거대담론들에 대한 회의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감각적 실재의 복원이라는 문제

의식에 따라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진행되었던 모더니즘은 한편으로 헬름홀츠(H. Helmholtz), 마하(E. Mach) 등의 이론을 기초로 진행된 '심리적인 것의 정량화(Quantification of the psychic)'와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psychologie)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색, 소리, 냄새 등과 같은 2차적인 물리적 대상들에 대한 형태학적인 분석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모더니즘의 시기는 전통적 권위주의 및 자본주의적 비인간화가 인간해방을 목표로 한 사회발전의 파롤과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의 타파나 본래적인 인간상의 회복 그 어느 하나도 단선적으로 해결되기 힘든 시기였다.¹⁾

1)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Gregor Schiemann, 'Wahrheitsgewiss- heitsverlust: Hermann von Helmholtz' Mechanismus im Anbruch der Moderne, Darmstadt 1997. Gyorgy Kepes, Sprache des Sehens, Mainz 1970

* 정회원,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학전공 전임강사

이 같은 상황에서 릴리 라이히(Lilly Reich, 1885-1947), 루시 힐레бран트(Lucy Hillebrand, 1906-1997)와 더불어 초창기 독일 어권 여성 건축가들 중의 하나였던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Margarete Schütte-Lihotzky, 1897-2000)는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의 문제를 모더니즘적 기능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한 최초의 선구자였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녀는 특히 전통적으로 여성만을 위한 공간으로 여겨져 왔던 부엌공간에 주목하여, 이곳에서 권위주의적 성차별과 그로 인한 여성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서 노동의 기능주의적 합리화의 원칙에 입각한 획기적인 설계 디자인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이중적인 측면에서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즉 한편으로 정량화되고 측정 가능하다고 전제된 노동이 효율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여성의 노동부담은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노력은 여성해방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말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명목 하에 여성은 작업장의 노동자들처럼 고도의 노동효과를 이끌어내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을 겸하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문제시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는 소개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도 뒤늦게 연구되기 시작한 여성 건축가 리호츠키의 부엌가구 설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녀의 건축이념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규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더 나아가 그녀의 건축이 지향하고자 하였던 기능주의 건축과 여성해방에 대한 공통의 지평을 찾아 건축과 페미니즘의 연관관계에 관한 연구의 기초를 모색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형성 발전된 모더니즘 문화는 일의적으로 규정될 수 없을 만큼 그 폭과 작용영역에 있어 극히 포괄적이다. 본 연구가 그늘에 가려져 왔던 모더니즘 시기의 초창기 여성 건축가의 미래지향적인 실내건축 이념을 권위주의적 가부장제 비판과 현대건축이념 간의 결합이라는 맥락에서 새로이 발굴하고 현재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는 노동의 합리화와 기능주의 건축이념이 결합해 있던 20세기 초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1920년대에 이루어진 리호츠키의 페미니즘적 실내건축에 한정된다.

방법에 있어서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사회사적이고 학문적인 지형 내에서 리호츠키의 위상을 정립한 후, 그녀의 '빌트-인 주방' 설계가 지니는 건축미학적인 측면과 인간학적인 측면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그녀의 건축이념에 자리 잡고 있는 '단순성과 합리성의 결합'이라는 기본 이념을 문화비판적인 맥락에서 재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따라서 2장에서는 리호츠키가 활동하였던 20세기 초의 학문적이고 사회적인 지형이, 3장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리호츠키의 '빌트-인 주방' 설계의 위상과 의의가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건축과 페미니즘 간의 관계가 논의될 것이다.

2. 합리성의 신화

2.1. 인간가치의 정량화

(1) 헬름홀쯔

물리학자인 동시에 생리학자이며 또한 철학자이기도 한 헤르만 헬름홀쯔(Hermann von Helmholtz, 1821-1894)는 관념론적인 형이상학을 거부하면서 감각적 실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20세기 초 실증과학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자연과학적인 업적들에 의거하여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문제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던 그는 감각을 외부세계의 기호로 간주하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생생한 현상들이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들에 종속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²⁾.

그러나 그가 근거로 삼고 있었던 자연과학적 기초는 종래의 유클리드적인 기하학적 공간이 아니라, 변화와 흐름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비 유클리드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의 논의의 중심에는 규범적이고 법칙적인 정적인 사고 대신 감각적 일부로서의 심리적 활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논의대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직관과 사고에서 무엇이 진리인가" 라든가 "우리의 재현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실제적인 사물에 부합되는가?"라는 물음 대신, '재현의 일종인 감각들은 과연 물체의 실제적 특성을 드러내주는가?'³⁾라는 물음을 제기해야 한다고 한다. 빛이나 색에 대한 시각적 감각들은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자체의 의미가 파악되는 '아직 해석되지 않은 기호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시각이나 청각과 같은 인간의 감각들은 외적인 자극으로 인해 야기되기 보다는 신경섬유소들의 특정한 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각들이 순수하게 경험에 의존하며 경험을 통해 비로소 해석의 길에 놓일 수 있다면, 감각의 해석으로서의 이 같은 경험적 지식은 필연적인 보편법칙이 아니라 우연적인 법칙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헬름홀쯔는 자연현상들에서 보이는 확고한 인과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에 내재한 법칙으로서 경험적으로는 입증될 수 없는 '우연적 법칙의 보편성'⁴⁾

2) Gary Hatfield, *The Natural and the Normativ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0, p.166.

3) Hermann von Helmholtz, *Epistemological Writings*, ed. Cohen and Elkana, Boston 1977, p.117.

4) Hermann von Helmholtz, *Selected Writings of Hermann von*

을 주장해야만 했던 것이다. 결국 감각적 지각을 포함하여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작용을 양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그러한 작용의 기저에 있는 우연적인 법칙을 밝히고자 하였던 헬름홀츠는 학문의 관심사를 초개인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영역으로부터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영역으로 옮겨놓았으며, 동시에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예술이 한데 어우러져 논의될 수 있는 이론적 접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마하

학문 일반의 대상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적이고 감각적인 것이라고 할 때, 이러한 감각적 실재의 법칙을 밝히려는 시도는 필연적인 보편법칙에 근거한 기존의 학문 패러다임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에른스트 마하(Ernst Mach, 1836-1916)는 인간의 심리적 가치의 양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헬름홀츠와 그의 추종자들보다 더 급진적인 주장을 개진하였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 따르면, 심리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다루는 학문은 기존의 과학이론에 걸맞게 수행되기 위해 생리학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학이론들이 이러한 새로운 이론에 부합되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세기 말까지 학문적인 고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감각적 지각은 다시금 본래적인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마하는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표현하였다: “색, 음조, 온도, 압력, 공간 시간 등은 물리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최소단위들이다”⁵⁾. 이러한 최소 기본단위들은 감각적 실재의 기본단위들로서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실재세계를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감각적 요소들인 것이다. 따라서 학문의 과제는 이러한 요소들 간의 실제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데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하는 심리적 양을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고자 했는가? 그에 따르면, 내가 지각하는 현상, 즉 감각의 대상은 나의 감각의 징표로서 작용하는 외적인 관찰요소의 상태를 수치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측정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외적인 징표의 질서가 감각의 질서와 등위적으로 연관됨으로써 감각의 측정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결국 객관적인 등위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감각들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실 마하는 감각이 측정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⁶⁾. 그러나 여기서 측정 개념이 의미하는 것은 당시의 기준이었던 ‘유리수 척도(ordinal scale)’에 따른 측정이며, 감각의 측정은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마하는 오늘날의 척도인

‘구간 척도(interval scale)’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감각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실제로 작용하는 힘들의 관계와 감각속에서 구별되는 강도의 수적인 차이들 간의 일정한 비율적 연관이 고찰됨으로써, 감각은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인간가치를 정량화시켜 측정하고자 하였던 헬름홀츠와 마하는 비 유클리드적인 공간에 기초하여 우연적이고 비 정합적인 법칙을 구상함으로써, 기존의 학문적 패러다임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의 경계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 심리적인 것의 학문적 대상화를 가능케 할 수 있었으며 학제 간 연구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2.2. 인간노동의 합리화와 효율성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학문적 지형이 인간의 감각들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실재적인 삶의 다채로움을 과학적 패러다임으로 포착하려는 노력으로 점철되었다면, 사회문화적인 지형에서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가치체계를 극복하려는 일환으로 인간 노동의 순수하고도 효율적인 사용이 중심적인 문제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학문적인 지형에서와는 달리 사회문화적인 지형에서는 문제의 양상이 복합적인 형태로 중첩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노동의 순수성을 보장하려는 시도가 노동의 효율성을 야기시키려는 시도와 반드시 일치되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히 독일여성의 노동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세기 초 사회민주주의가 권력을 장악하고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클라라 제트킨(Clara Zetkin)과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등이 여성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해방된 여성의 ‘이미지’에 더 기울어졌다. 이 당시 광고와 미국 영화들에서 성적이고 사회적으로 해방된 젊은 여성의 이미지는 근대성의 숭배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강력했다. 짧은 머리에 여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서 가사일 대신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신 여성(New Woman)’의 이미지는 가정에 대해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가정을 노동의 재생산과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최소단위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회주의자들에게도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⁷⁾.

게다가 전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1917년에는 급기야 남자 대학생의 수를 넘어섰다⁸⁾.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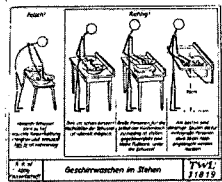
7)Atina Grossmann, “The New Woma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exuality in Weimar Germany,” in: Powers of Desire: The Politics of Sexuality, ed. Ann Snitow,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3, pp.156-158.
8)Hugh W. Puckett, Germany’s Women Go Forwar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30, pp.200-201.

Helmholtz, ed. Kahl, Middletown, Connecticut 1971, pp.3-4.

5)Ernst Mach, Die Analyse der Empfindungen und das Verhältnis des Physischen zum Psychischen, 9. Aufl. Jena 1922, S. 34.

6)Ibid. 281.

식적으로 깨어 있는 여성의 증가는 출산을 저하와 사회진출의 성장을 가져왔다. 이것은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했는데, 즉 하나로 부릴 수 있는 여성의 감소로 인해 중산층 계급이 정부를 압박하게 되었던 반면, 산업현장에서 여성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새로운 노동자 세대의 예비인력으로서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여성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고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고 출산을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키는 방법은 가정에서 여성이 지니는 역할을 강조하는 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성에게 남자와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주장 대신 여성이 가정에서 지니는 역할이 새롭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러한 지위가 남성적인 직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유포될 수 있었다.



<그림 1> 길버트와 테일러의 작업조건 연구, 1929

이 같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 기관들과 리버럴한 여성단체들은 가정을 여성의 '전문적인 작업장'으로 미화하면서 가정이라는 활동공간을 개혁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혁의 근간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마치 공장 노동의 효율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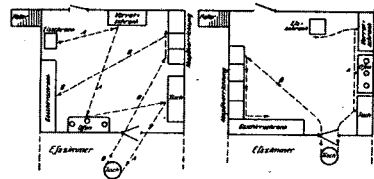
사용되어야 한다는 파롤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집안의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노동을 최소화시키는 도구들의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들은 시간과 동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생산성 증가와 소모적인 노력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품을 고안할 수 있었다.



<그림 2> 프레데릭의 네덜란드어판 '생각하는 주부'의 표지, 1928

이러한 연구의 선구자는 네델란드 출신의 크리스티네 프레데릭(Christine Frederick)이었다. '가정 과학 (domestic science)'의 기초자로 불릴 수 있는 프레데릭은 자신의 주저⁹⁾에서 가사노동을 근대화 및 사회적 진보와 연관하여 기술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시간표를 짜고, 식사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며 기구들을 항상 잘 체크함으로써, 여성들은 자기 고유의 '워크 스타이션'으로서의 부역을 경영하는 가정 매니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독일의 영향력 있는 보수적 여성단체들¹⁰⁾에게 커다란 자극을 줄 수 있었다. 특히

보수적인 여성단체들은 국가와 결합하여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가정'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중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독일 가정주부 협회 연맹'은 적합한 주방도구에 관해 국립 표준협회와 공동으로 협의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부합되는 생상품 개발을 위해 각종 산업체에 자문을 구하였다. 산업체 측에서도 그에 부응하는 노력을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 명망있는 건축가였던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와 엘사 레그반트(Elsa Oppler Legband)에 의해 디자인된 '여성 서클의 집(Haus der Ring der Frauen)'이었다.



<그림 3> 프레데릭의 동선분석

발전된 과학기술과 합리화로 포장된 여성적 공간의 개혁은 "건축가와 가정주부의 체계적인 공동작업"¹¹⁾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냈다. 건축가들은 '전문적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전문적인 가사노동'에 자신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전문적인 가정주부들은 현대적인 기술발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디자이너들과 건축가들의 새로운 고안품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으른 주부들'을 꾸짖었다¹²⁾. 이처럼 가정의 영역에서 관철된 합리화와 과학기술화의 신화는 새로운 지향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즉 그것은 인간의 노동을 정량화시켜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필요한 동작을 최소화 시키며,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의 성 구분 및 이데올로기의 차원을 넘어서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화와 과학기술화라는 신화에 기초한 모더니즘적 기능주의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즉 여성 공간과 여성 노동의 효율적인 합리화는 전통적 권위주의 가치가 그대로 체현되어 있는 가정의 구조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여성의 가사노동만을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남성중심의 작업장에서 지배적이었던 노동의 효율성 증대라는 파롤이 여성들에게도 관철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낳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일반의 기능적 합리화가 무엇보다

9)Christine Frederick, Household Engineering: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Home, Chicago: American School of Home Economics 1919.

10)예를 들면, '독일 여성클럽 연맹(Bund Deutscher Frauenvereine)'과 '독일 가정주부 협회 연맹(Reichsverband Deutscher Hausfrauenvereine)' 등을 들 수 있다.

11)Erna Meyer, "Wohnungsbau und Hausführung," in: Der Baumeister, 25 Beilagen, 1927, S. 89.

12)예컨대 한 여성 잡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건축가들은 공간의 사용법과 작은 부역의 중요성에 관해 가정주부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Edith Jacoby-Oske, "Frauenanteil an der Lösung der Wohnungsfragen," in: Die Frau 33, Sept. 1926, S.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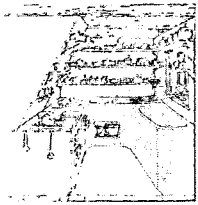
중요한 것이라는 환상이 생겨날 수 있었다.

결국 20세기 초의 학문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지형은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인간가치의 계량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전통적 가치의 타파와 새로운 합리성의 추구라는 두 갈래의 문제들이 서로 열기설기 교차하여 이루고 있는 그물망인 것이다.

3. 마가레트 슈테-리호츠키의 건축

3.1. 리호츠키의 건축이념

오스트리아 비엔나 태생의 리호츠키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20세기 초의 학문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지형에 직접 몸을 담고 있었던 여성 건축가이다. 그녀는 아돌프 로스(Adolf Loos)와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에게서 수련을 하였으며, 세계 각국에서 정력적인 활동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치적인 문제에도 적극 가담하여 반 과시즘 저항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림 4> 리호츠키의 부엌 스케치, 1921

그 때문에 그녀는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다행히도 4년 반 동안의 형무소 생활을 마치고 풀려날 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그녀의 건축적 행보에는 모더니즘적 기능주의 건축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의 문제가 항상 조화를 이루며 추구되었다.

그녀의 이 같은 문제의식이 최초로 집약되어 나타난 곳은 바로 192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베르크분트 전시회(Werkbund Exhibition)’와 같은 해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국제 무역박람회였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활(Neues Leben)’이라는 사회적 이상을 모토로 하여 당시 도시 건축가인 에른스트 마이(Ernst May)는 수많은 관계자들을 ‘베르크분트’ 전시회에 초대하였다. 이 전시회에서는 특히 현대적인 주거공간의 실험적 디자인으로서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한 ‘바이센호프 주거단지(Weissenhof Siedlung)’ 설계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특히 여성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 영역(household sphere)’에 주목한 마이는 전시에 앞서 자신의 디자인 팀과 함께 심리적인 측면, 재료와 소재의 평가, 그리고 가사영역의 과학적 경영원리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¹³⁾. 다양하고 밝은 색조를 사용하여 주부의



<그림 5> 프랑크푸르트 부엌, 1927

13)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로는 Christoph Mohr and Michael Müller, *Funktionalität und Moderne. Das Neue Frankfurt und seine Bauten, 1925-1933*, Köln 1984 참조.

작업공간을 밝게 만들고,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면을 에나멜로 처리하며, 가구의 먼지를 제거할 때 도움이 되도록 손에 닿기 힘든 부분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는 것 등은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결과물들이다. 가사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투여된 부분은 바로 부엌이었다.



<그림 6> 새로운 가사경영의 표지, 1926

당시 주부의 ‘전문적인 사무실’인 동시에 과학기술발전의 주체로서 규정되기도 했던 부엌공간은 기능주의 건축, 전통적 가치의 해체, 노동의 합리적 사용, 그리고 비효율적인 가사노동으로부터의 여성의 해방이라는 문제들이 한데 만나는 지점이었다. 마이의 디자인 팀에서 유일한 여성 건축가였던 리호츠키는 소위 ‘프랑크푸르트 부엌(Die Frankfurter Küche)’라고 불리우는 부엌 디자인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림 7> J.J.P. Oud의 바이센호프 단지의 부엌,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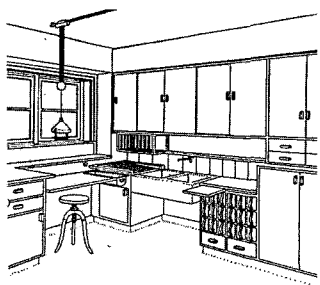
192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베르크분트 전시회’에서도 에르나 마이어(Erna Meyer)와 슈투트가르트 주거연합회를 중심으로 주방전시가 이루어진다. 마이어는 미국의 프레데릭 윈슬로 테일러(Frederick Winslow Taylor, 1856-1915)의 작업장과 작업동선에 관한 연구 등을 받아들여 1926년 ‘새로운 가사경영(Der Neue Haushalt)’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그녀는 바이센호프단지 주택을 설계한 오우드(J.J.P. Oud)¹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여건축가들을 위해 주방 계획 조언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실제 베르크분트 전시장 2층에는 가정기기 용품들과 함께 마이어의 조언으로 탄생하게 된 에체바흐(Eschebach)사의 주방¹⁵⁾과 바로 그 옆에 프랑크푸르트 부엌이 전시되었다.

1927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국제 무역박람회에서도 소개된 리호츠키의 부엌은 ‘새로운 주거공간과 인테리어’¹⁶⁾라는 맥락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 컨셉은 현실적인 문제 상황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 모두에게서 긴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다름 아닌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특별한 도움 없이 다각도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중산층 여성들만이 아니라,

14) 1927년 바이센호프 단지에 만들어진 오우드의 부엌은 종종 슈테-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엌과 비교된다.

15) 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구상에서나 세부사항에서나 마이어의 부엌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6) “Vom neuen Bauen in Frankfurt am Main. III. Ausstellung ‘Die neue Wohnung und ihr Innenausbau’ und Tagung der Baufachleute am 28. und 20. März 1927”, in: *Der Baumeister* 25 Beilagen, 1927, S. 107.



<그림 8>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투시도, 1927

가정일 이외에도 일하러 나가야만 하는 노동자계층의 여성들 역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무리한 노동은 전체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하게 되었다”¹⁷⁾. 주부의 비효율적인 가사노동이 국민건강을 해칠 정도로 광범위한 문

제의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인식은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학문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영역들 전체에 걸쳐 진행된 인간가치의 합리화 및 전통적 가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 역시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가사노동의 합리화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다른 여러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의견수렴 및 숙고들과 병행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¹⁸⁾.

이것을 위한 선결요건을 리호츠키는 대중들의, 특히 가정주부들의 의식변화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가정주부클럽들과 함께 ‘모던한 가사일 (Der neuzeitliche Haushalt)’이라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현대적인 주방과 실내디자인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또한 가정주부클럽들은 부엌과 거실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에 대한 순회강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리호츠키는 이러한 강연들에서 노동력을 절감해주는 부엌 디자인, 위생적인 동시에 합리적으로 구획된 화장실 설계,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비싸지 않은 가구들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단순성과 합목적성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화려한 장식을 선호하였던 가정주부들은 “단순성과 합목적성이 단순히 노동 절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재, 올바른 형태와 색깔, 쾌적함, 그리고 아름다움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¹⁹⁾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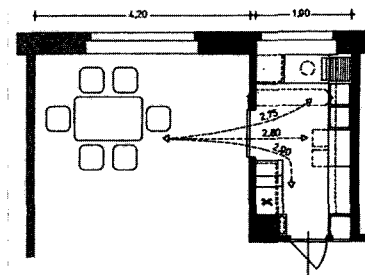
결국 리호츠키는 미와 실용성, 명료하고 단순한 디자인과 노동의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과 비용절감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기능주의 건축이념에 입각하여 부엌과 거실을 새롭게 설계하고 주부의 가사노동을 합리화함으로써, 현실의 다양한 모습들의 집합체인 여성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17) Grete Lihotzky, Rationalisierung im Haushalt, in: Die Frankfurter Küche von Margarete Schütte-Lihotzky, hrsg. von Peter Noever, Berlin, 1992, S. 16.

18) Ibid. 16.

19) Ibid. 17.

3.2. 프랑크푸르트 부엌 설계



<그림 9>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평면, 1927

3,44m x 1,87m 작은 크기의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거프로그램들 중 가장 호평 받는 작품이었다²⁰⁾. 모든 기구들이 조작자의 손에 닿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프랑크푸

르트 부엌은 모든 동작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숙고된 디자인의 산물이다.



<그림 10> 기차 식당칸 '미트로파', 1927

리호츠키에게 있어 부엌의 새 디자인과 합리화를 위한 중요한 모범은 바로 기차 식당칸의 부엌이었다. 그녀는 식당칸의 부엌에서 편도에 대략 182인분의 점심식사, 60인분의 아침식사, 60인분의 저녁식사 그 외에 음료수와 같은 주문을 포함하여 400명 이상의 손님을 위한 요리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주시하고 기차식당칸 부엌디자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프랑크푸르트 부엌설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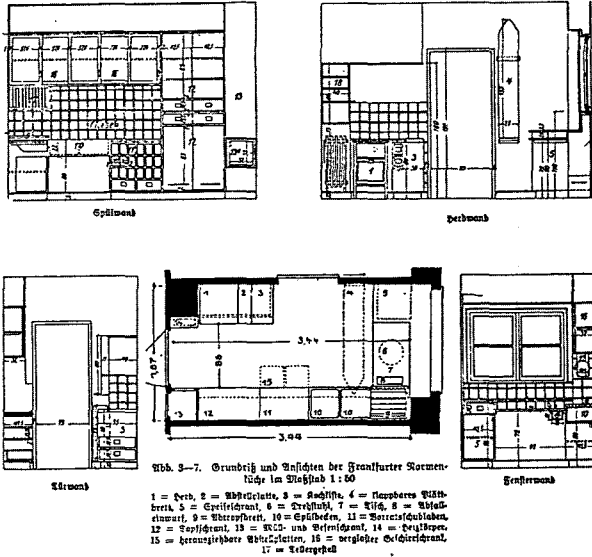
에 적용시킨다.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스탠다드 버전은 한 사람에게 의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게끔 설계되었다. 단절 없이 연결된 작업공간은 조작자인 주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모서리부분에 위치한 컷팅 보드는 작은 쓰레기통을 갖추고 있다. 유리 찬장 밑에 붙어 있는 나무로 된 접시꽂이는 젖은 접시들을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며, 윗부분에 달린 갈고리들은 조리기구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밑 부분에 설치된 18개의 서랍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부엌 중앙은 거실과 직접 통할 수 있도록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용된 소재는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강한 색조를 지닌 신소재들이다. 부엌 벽과 벤틸레이터 후드의 하얀 색조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며, 알루미늄 싱크대와

20) 제국 연방연구소(Reichsforschungsgesellschaft)가 발행하는 간행물에서 그녀의 작품은 하인없이 가사일을 꾸러나가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해결책으로 평가되었다. Paul Mebes, “Gedanken zur Küchengestaltung”, in: Die Küche der Klein- und Mittelwohnung. Reichsforschungsgesellschaft für Wirtschaftlichkeit im Bau- und Wohnungswesen E.V. Sonderheft 2, Group II 6, No. 2, Juni 1928, S. 10.

알루미늄 저장통은 금속성의 회색빛으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인상을 자아낸다. 반면 리놀륨으로 된 조리대, 스토브 판, 바닥 타일 등은 검은 색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에나멜 처리된 진열장 전면은 짙은 청색으로 채색되었는데, 리호츠키에 따르면, 짙은 청색은 파리와 벌레들을 쫓아주는 색이라고 한다.



<그림 12>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입면

부엌 설계의 기본 요소들과 노동절감 요소들¹⁾을 도표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계의 기본요소

기본 요소	위치와 기능
벤틸레이터	스토브위에 설치.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흡수 (일반 가정에서는 아직 전기로 작동되는 벤틸레이터가 설치될 수 없었다)
음식보관함	부엌 창 밑에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통 설치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전기 냉장고가 없었다)
받침대	모든 수납장과 조리대는 바닥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뒤로 약간 들어가 있으며 같은 나무판으로 씌워진 시멘트 받침대로 지지된다.
쓰레기 및 빗자루 장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전기 청소기가 없기 때문에 방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통상적으로 부엌에 있는 쓰레기통에 넣어졌다. 더구나 음식쓰레기 처리도 부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생상의 문제도 존재했다. 그리하여 부엌과 거실 사이에 음식쓰레기와 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버리는 밀폐된 공간이 마련되었고 그곳에 청소도구도 보관될 수 있었다.
창문밀막	창문 밑에 있는 벽은 창문판 위에 놓여진 물건들이 창문 양 날개의 개폐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층을 지어 설계된다.

<표 2> 노동절감요소

기본 요소	위치와 기능
개수대	개수대는 항상 모퉁이에 설치된다. 그 이유는 왼손으로 식기들을 잡을 수 있으며 세척 후에 다시 원위치로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새로운 장치는 벽에 설치된 접시 건조대이다. 이 건조대는 젖은 접시를 닦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조리상자	스토브 옆에는 에나멜 처리된 뚜껑을 가진 통이 설치된다. 이것은 뜨거운 냄비를 놓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통 안에는 보존재질로 처리된 두 개의 금속실린더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조리상자는 보존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리대와 음식물 찌꺼기받이	조리대판으로는 리놀륨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잘 긁히지 않고 잘 산화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조리대 오른쪽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이 안에는 하얀 색 에나멜 처리된 금속통이 들어 있다. 아채나 육류 혹은 과일 찌꺼기들은 조리 중 바로 이곳에 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건조한 식재료 보관	밀가루, 쌀, 잡곡류 등은 흔히 종이팩에 담겨 보관되곤 했는데, 보관과 위생이 문제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알루미늄으로 된 다양한 통들이 설치된다. 이 통들의 특징은 부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조리할 때 통으로부터 바로 냄비에 적절히 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위적 조명	좁은 공간을 화하게 비출 수 있는 진공관 램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대신 효율적인 조명을 위해 미달이 램프가 설치된다. 미달이 램프는 천장에 설치되어 옷걸이 같은 것으로 쉽게 이리저리 움직여질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그림자 없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
다림질	벽에 부착된 다림질판은 개수대 끝에 설치된다. 특히 옆에 설치된 높낮이 조절 장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정리된 설계의 기본 요소와 노동절감 요소들은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적인 요소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리호츠키가 부엌 공간의 합리화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였는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엌 디자인에서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부엌이 더 이상 방이 아니라 벽감(壁龕)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성의 영역은 공존하는 다른 영역들에 개입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평온과 휴식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일들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역시 효율성과 건강이라는 측면과 관계되는데, 벽감으로서 생각된 부엌공간은 거주공간을 조리냄새와 증기 그리고 소음과 주방기구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또 다른 키포인트는 그녀에 의해 부엌 가구가 소비자 생산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개별 유닛들을 날개로 판매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던 것이다.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전시회에 출품된 다른 부엌 디자인들이나 당시 개발된 부엌 가구들은 아직 상업화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들이었다. 개별 유닛들로 이루어진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가사문화화를 진전된 형태로 발전시켰으며, 시장에서만 결정되던 주방설계에 대한 관심을 사적인 영역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었다. 이것을 위해 리호츠키는 산업체 및 가정주부클럽들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리호츠키 자신은 이 같은 공조체제가 복지국가의 수립과 연관된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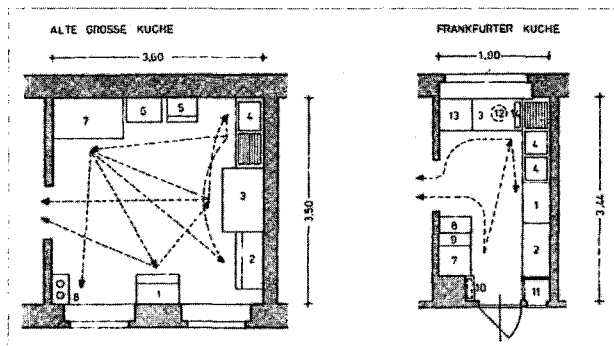
그리하여 가족으로 대표되는 사적인 가부장제는 그 이후로



<그림 13> 프랑크푸르트 부역의 개수대 쪽

점차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리호츠키뿐 아니라 에른스트 마이나 브루노 타우트(Bruno Taut) 또는 마틴 바그너(Martin Wagner) 등에 의해 주도된 주거계획들 내에서도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 간의 차이는 점차 희박해지게 되었다. 사실 모더니즘적 합리주의가 기초로 삼았던 이상도 역시 그런 종류의 포용력이었던바, 이것은 결국 사회적이고 성적인 차이들을

넘어서는 보편적 이상이었던 것이다.



<그림 14> 이전 부역과 프랑크푸르트 부역의 동선 비교

4. 결론

20세기 말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그녀의 활동과정에서 변함 없이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졌던 문제는 '합리화를 통한 가사노동의 비효율성 극복'이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공간으로 여겨져 온 부역공간의 합리화는 그녀가 보기에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전통적 가치체계를 타파하고 동시에 새로운 인간상을 형성시킬 수 있는 핵심 고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과연 그녀의 부역 설계가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사실 가족의 형태로 대표된 사적인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그녀의 건축설계를 통해 해체되거나 최소한 해체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산업과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공적인 가부장제로 옮겨졌다고 할 수 있다. 가정주부를 비효율적인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고 해서 여성의 권익과 여성성 자체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능주의적 이념의 강화는 오히려 인간의 기계화나 상품 물신주의만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에서 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역 설계가 여전히 의미 있을 수

있는 점은 현실의 다양한 문제 상황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쟁점인 여성공간의 합리화로부터 해결의 고리를 찾아 이를 근거로 하여 건축적 기능화와 인간가치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그녀의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새로운 건축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나 보다 나은 인간상을 구현하려는 사람들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참고문헌

1. Atina Grossmann, "The New Woma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exuality in Weimar Germany," in: Powers of Desire: The Politics of Sexuality, ed. Ann Snitow,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83
2. Christine Frederick, Household Engineering: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Home, Chicago: American School of Home Economics 1919
3. Christoph Mohr and Michael Müller, Funktionalität und Moderne. Das Neue Frankfurt und seine Bauten, 1925-1933, Köln 1984
4. Edith Jacoby-Oske, "Frauenanteil an der Lösung der Wohnungsfragen," in: Die Frau 33, Sept. 1926
5. Erna Meyer, "Wohnungsbau und Hausführung," in: Der Baumeister, 25 Beilagen, 1927
6. Ernst Mach, Die Analyse der Empfindungen und das Verhältnis des Physischen zum Psychischen, 9. Aufl. Jena 1922
7. Gary Hatfield, The Natural and the Normative.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90
8. Grete Lihotzky, Rationalisierung im Haushalt, in: Die Frankfurter Küche von Margarete Schütte-Lihotzky, hrsg. von Peter Noever, Berlin, 1992
9. Hermann von Helmholtz, Epistemological Writings, ed. Cohen and Elkana, Boston 1977
10. Hermann von Helmholtz, Selected Writings of Hermann von Helmholtz, ed. Kahl, Middletown, Connecticut 1971
11. Hugh W. Puckett, Germany's Women Go Forwar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30
12. Paul Mebes, "Gedanken zur Küchengestaltung", in: Die Küche der Klein- und Mittelwohnung. Reichsforschungsgesellschaft für Wirtschaftlichkeit im Bau- und Wohnungswesen E.V. Sonderheft 2, Group II 6, No. 2, Juni 1928
13. "Vom neuen Bauen in Frankfurt am Main. III. Ausstellung 'Die neue Wohnung und ihr Innenausbau' und Tagung der Baufachleute am 28. und 20. März 1927", in: Der Baumeister 25 Beilagen, 1927

<접수 : 2005. 4. 28>